

어린이 포교 · 간화선 대중화 예산 두 배로

조계종 중앙총회, 내년 예산 172억원 승인... 중앙승가대 특별회계 21억8천만원 '눈길'

내년도 조계종 예산에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한국불교세계화 및 간화선 대중화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이는 총무원장 지원 스님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밝힌 어린이 포교 등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자승)는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72회 정기중앙총회를 속개해 2007년도 일반 회계 세입과 세출을 171억9천8백51만 5,000원으로 확정했다.

어린이 포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5억2천1백63만 3,00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가 지만해도 어린이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 형태의 간접 사업만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는 간접 사업비 증액은 물론 직접 사업으로 어린이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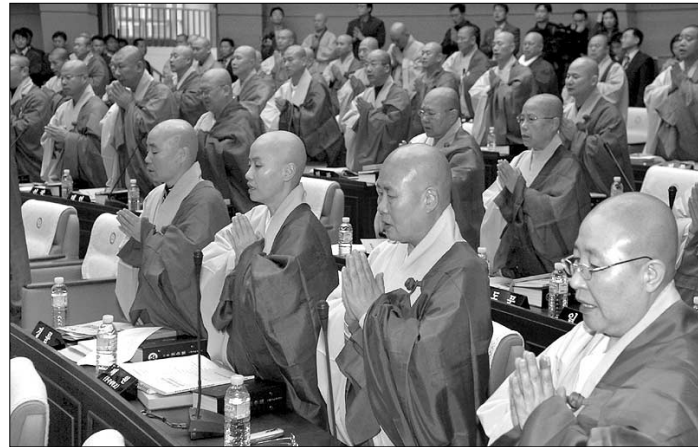
조직 네트워크 형성, 어린이교재 시리즈 제작 등에 3억원 가량의 신규 예산을 책정해 어린이포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 세계화 및 간화선 대중화 사업 예산도 대폭 늘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그동안 포교원과 총무원 사회부로 나눠졌던 국제 업무를 사회부로 통합하고 예산도 전년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1백37만 2,000원을 결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국 남하사 초청 방문 및 종조 도의국사 기념비 제작, 대만 불광산사 대표단 초청, 스리랑카 복지타운 준공, 해외불교 협력 지원 등 다양하다.

포교원의 간화선 대중화 사업과 관련된 간화선입문프로그램 연구 개발비를 전년 대비 108% 증액한 4천 4백2만 3,000원으로 확정하고 계층별 간화선입문 프로그램 연구 개발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23일 열린 제172회 정기중앙총회에서 2007년도 조계종 예산 171억9천8백51만5000원을 확정 통과시켰다. 사진=고영배 기자

비를 신설해 1천2백52만 7,000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교육원에서는 일반 연구교육비 가운데 2천1백2만원을 간화선 실천수행 향상 과정 운영비로 책정했고 불학 연구비 가운데 <간화선>

보완 및 영역 사업에 2천4백95만원, 간화선 세미나 사업에 1천2백15만 원을 책정해 늘었다. 스님들의 전유물만 여겨졌던 간화선을 일반 재가 신도들에게까지 보급시켜 대중화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내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박물관 및 공연장, 종합민원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및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한 8천79만 8,000원이, 해외소재 불교문화재 현황조사 및 도난정보 웹서비스 구축 사업에 1천3백9만 8,000원, 성보박물관 보존 환경조사에 1천6백34만 원, 남북불교문화 학술대회에 1천8백48만 4,000원이 각각 신규 책정됐다.

한편 특수 목적의 특별회계에는 시설특별회계 34억3천 1백 76만 4,000원, 중앙승가대 특별회계 21억 8천7백45만 4,000원, 신도교무금 특별회계 8억8천5백79만 6,000원, 승려노후복지특별회계 1억1천1백72만 4,000원이 각각 책정돼 해당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식 기자

조계종 2007년 주요 사업별 예산

분야	상세 내용	지원 금액
어린이 포교	어린이청소년포교지원	261,040,000원
	청소년법집 편찬	11,000,000원
	어린이포교 조직 네트워크	28,588,000원
	어린이교재 시리즈 제작	34,890,000원
	어린이법회 개설 지원	18,000,000원
한국불교 세계화	해외불교 협력 지원	13,000,000원
	중국불교 교류	27,784,000원
	대만 불광산사 대표단 초청	38,600,000원
	스리랑카 복지타운 준공식	34,286,000원
간화선 대중화	간화선 세미나	12,150,000원
	<간화선> 보완 및 영역	24,950,000원
	간화선 실천수행 향상 과정 운영	21,020,000원
	간화선입문프로그램 연구개발	44,023,000원
	계층별 간화선입문프로그램 연구개발	12,527,000원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및 운영	80,798,000원
	불교중앙박물관 캠페인 사업	2,500,000원
공무원장료	관람료사찰 관리 지원	6,530,000원
페이 대응	공무원장료 페이 대응	12,700,000원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기념관 운영	826,997,000원
불교문화개발	사찰음식의 전송보급체계확립	19,428,000원
	의제 통일	22,080,000원
중무행정	중무행정 지방이양	9,293,000원

“개원총회 의욕적” 평가

26건 처리하고 23일 폐회, ‘쟁점·대립’ 없어

11월 13일 개원한 제172회 정기중앙총회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폐회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정도로 의정 활동이 활발해 제14대 중앙총회가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해운, 광우, 묘업, 지원, 명성, 정훈, 정화 스님 등 스님 7명의 비구니스님에 대한

‘명사’ 품수를 만장일치 동의했고,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로 상운, 우담, 성원, 성운 스님을 추천했다.

또한 중법 개정을 위해 중현중법 개정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장지 스님을 위원장에 선임했으며 대오, 광조, 장주, 덕문, 효림, 성정, 재현, 태현 스님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중현중법개정안 기초특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중

양종무위원선거법, 중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박산, 등운, 진오, 승혜 스님이 선출됐다.

그 외에도 용주사 팔프연승장 저지 및 토지 환수를 위한 결의문과 지난 10월 11일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에 대한 공주지방검찰청의 압수 수색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장지 스님 등이 발의한 ‘중양선관위원회 해임결의안’은 차기 총회로 이월됐다.

김두식 기자

내년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공모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내달 20일 마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2007년도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공모한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기본 요건은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거나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찰로 전통 가람구성의 기본적인 단위를 갖춘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자 20인 이상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방과 방사(숙소)를 갖추고 사용에 불편이 없는 화장실과 세면장 등의 편의시

설을 갖춘 사찰 △전담 또는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 사찰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찰은 접수 공문, 신청서, 사찰홍보물 일체, 사찰 조감도 또는 가람 배치도, 전경 및 시설 사진 등을 첨부해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45번지 1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및 방문, 이메일(ts2002@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02)732-9946

남동우 기자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이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화제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생활에 좋은 지료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불교(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다투스
- 문의전화 : (02)2004-8213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액(고 10만) 열서를 드립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원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불교(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아온 www.yosiamoo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포교국장 오심, 신도국장에 재안 스님

조계종 포교원 새 포교국장에 오심, 신도국장에 재안 스님이 11월 20일자로 임명됐다.

오심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통도사 포교국

장,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울산 월봉사 주지를 맡고 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사회복지학)를 받은 재안 스님은 동국대 석림회장, 서울 봉은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총무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오영교 前 행정부 장관 입후보

동국대 총장후보 6명... 내달 1일 투표로 '추천'

오영교 前 행정자치부장관이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자에 입후보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

원장 지홍, 이하 총추위는 11월 24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교 前 장관을 비롯해 보

광(선학과), 현각(선학과) 스님, 이항우(경향행정학과), 김보환(경찰행정학과), 한진수(회계학과) 교수 등 총 6명의 후보자를 확정했다. 총추위는 12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에서 후보자 소견을 들은 뒤 투표를 실시해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소금 잘 만난 김치, 효능도 으뜸!!!

일반 김치보다 항암작용이 탁월한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항암작용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병술년은 천태산 황토 맹종죽염으로 김장하실 것을 권합니다.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처음에는 씹을만한 맛을 느끼지만, 숙성이 되면 최고의 김치맛이 날 뿐더러 항암작용이(정제염 30%, 죽염 66%) 일반김치보다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급되었던 황토맹종죽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공장도 가격 그대로를 책정하였습니다.

- 양치, 맛사지 및 김장용 3부구운 황토맹종죽염 380g 1만원
- 제조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체질개선용, 아홉번구운 맹종죽염 (380g 10만원) 주문시 올 바른 죽염 사용법 설명서를 동봉해 드립니다.
- 천태산 죽염 : 전화 055)382-5515, 011-870-3951 / 팩스 055)384-1553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의 實相과 理解

황토맹종죽염이란 본래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어 고열에 구워 만들어내는 민속 향약으로 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체의 건강 질병예방과 치료에 널리 응용 되어 온 신비로운 건강식품이다. 천태산 진우도인이 제조하는 천태산 황토 맹종죽염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천태산에서 천일기도중에 천태지자 대사의 수기로 진우도인이 신비의 죽염 제조 공법을 더욱 정밀히 개발 심화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궁합논과 연계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데 정력을 모았다.

보편적으로 죽염을 청죽과 염을 조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고 있으나 천태산 황토 맹종 죽염은 황토와 송진 첨가는 물론 대나무를 일반적으로 쓰는 왕죽과 분죽이 아닌 특수한 맹종죽을 주재료로 하는데 있다. 위 4가지 물질을 배합하여 1300℃ 이상의 고열을 가하여 아홉번을 형성 반복 결정체를 만드는 법제 방식으로 탁월한 공능을 갖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천하절경 성지순례 도량 천태산 천태사 성지순례 오세요.

과학세상 TODAY 부산일보

소금 잘 만난 김치 효능도 으뜸

부산대 박건영 교수 죽염김치 임예방·노화역제 연구 논문

죽염과 구운 소금이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소금을 태우는 과정에서 소금 속에 있는 중금속 등 나쁜 성분이 날아가고 미세한 등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아 항암등의 효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죽염 김치의 경우 위암 세포를 66%나 억제한 반면 천일염은 47%, 정제염 김치는 30% 억제하는데 그쳤다. 또 맛 측정을 위해 김치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맛판테스트 훈련을 시킨 다음 각각의 소금으로 담근 김치를 맛본 결과 죽염과 구운 소금이 정제염보다 훨씬 맛갈스럽다는 결론 얻었다고 한다.

(2006년 9월 13일자 수요일 20면 부산일보 보도)

이홉번 구운 천태산 황토맹종죽염 세븐 구운 천태산 황토맹종죽염